18

치근파절의 처치 및 예후

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교실
홍 찬 의

치아 외상은 크게 fracture와 luxation injury로 분류된다. 이 중에서 영구치의 root fracture는 외상의 0.5~7%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.

호발부위로는 상악 중절치가, 나이로는 11~20세에서 호발하며, 이보다 어린 나이에서는 alveolar socket의 elasticity 때문에 fracutre보다는 luxation 쪽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

이러한 root fracture 발생 후 예후는 pulp 및 periodontal ligament의 손상정도, fractured segment의 deviation 정도, 파절 위치, bacterial involvement의 유무 등에 따라 fracture site가 ① calcified tissue로 치유, ② connective tissue로 치유, ③ bone 및 connective tissue로 치유되거나 ④ 염증반응에 의해 주변 골조직이 파괴되는 양상을 띄는 등 병리학적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.

한편 root fracture 후 pulp necrosis의 가능성은 20~44%, pulp canal obliteration 가능성은 69%이며, root resorption(external resorption, internal resorption)도 약 60%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

본 강연에서는 root fracture시

1. 치유 및 염증반응 발생의 기전
2. 파절부위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 및 그 결과
3. Pulp necrosis 및 주변 골조직 염증 발생시 파절부위에 따른 적절한 처치 및 예후 등에 대해 관련 참고자료 및 임상 case 등을 통하여 심층 탐구하고자 한다.